



그린벨트내 LPG충전소 적정배치계획수립 건의

한국LPG가스공업협회

각 지자체들이 그린벨트내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, 최근 우리회는 적절한 배치계획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.

1 과당경쟁에 따른 업계 도산 우려

- LPG충전소와 유사한 주유소의 경우 지난 95년 11월 거리제한철폐이후 우후죽순처럼 신설됐으나 업계간 과당경쟁으로 휴·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수백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

〈주유소 휴·폐업 현황(연도별)〉 (단위 : 개소)

구 분	'95	'96	'97	'98	'99
광역시	218	131	136	134	54
기타도시	210	597	458	406	181
계	428	728	624	540	235

* 자료 : 한국주유소협회

- 또한 LPG충전소도 지난 99년부터 신설되거나 허가대기중인 충전소수가 폭증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주유소처럼 도산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

〈LPG충전소 연도별 증가현황〉 (단위 : 개소)

구 분	'95	'96	'97	'98	'99	'2000.11
충전소수	548	571	574	583	634	703

*위의 수치는 실제 영업중인 충전소수이며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신규허가 137개소, 허가대기중 209개소 등으로 모두 영업을 할 경우 LPG충전소는 1천개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

- 반면 LPG차량은 정부가 연도별로 특소세를 인상할 계획이어서 추후 LPG차량의 증가세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임

-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과다하게 수립한다면 주유소의 경우와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.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

- LPG충전업은 폭발위험성을 갖는 LP가스를 대량(10~400t) 저장·충전·취급하는 시설로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기준과 이를 지키려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음
- 즉 누구나 할수있게 진입을 자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타업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
- 또한 LPG자체가 품질이 동일한 제품으로 품질경쟁은 없고 가격경쟁만이 존재하므로 업소난립에 따른 과당가격경쟁은 필히 안전시설투자등 안전관리 비용억제로 안전소홀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것임

<사고예> 부천시 소재 충전소 폭발사고

- 사고원인 : · 탱크로리 하하작업중 로리호스 밸브에서 누설된 가스에 점화
- 사고내용 : · 1차, 2차, 3차 폭발로 불기둥 수백m, 충전소 시설 완전파괴,
· 탱크로리 및 용기 폭발, 인근 건물 20여동 전소,
· 탱크로리 파편 500m이상 비산, 93명 중경상

- 선진 유럽도 엄격한 기준하에 도심지에는 설치를 금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지난 98년부터 LPG충전소와 주택과의 안전거리를 종전 20m에서 80m로 확대한바 있음
- 특히 우리와 유사한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판매사업은 등록제로 완화(97.4)하였으나 충전사업은 위험성 때문에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임

3. 민원유발

- 대부분의 시민들은 LPG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충전소 건설시 지역주민과의 마찰등 민원 폭주 예상

4. 개발제한구역 훼손 우려 등 당초 취지와 배치

- 개발제한구역내에 LPG충전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취지에서였으나, 최근 나타난 몇몇 지자체의 경우처럼 개발제한구역내에 LPG충전소가 과다하게 설치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등 당초의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

5. 검토의견

-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각 지자체에서 LPG충전소배치계획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수백개의 충전소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,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가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.